

# 마곡사 친환경 방생법회 개최 '눈길'

## 토종 붕어 치어 35만 미 방류...지자체 연계사업 새모델 기대

일부 사찰의 외래어종 방생으로 생태계 교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마곡사가 공주시의 후원으로 친환경 방생법회를 열어 관심을 모았다.

조계종 제6교구 본사 범주사(주지 법웅)는 5월 27일 공주 신관동 둔치공원 백사장에서 방생 법회를 봉행했다. 공주시 지원으로 봉행된 이번 법회는 우리 자연 환경에 적응이 강한 토종 붕어 치어(체장 3cm 내외) 35만 미(未)를 방류, 사라져가는 내수면(內水面) 어족자원을 복원하고 시민 레저 활동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것.

보광원 주지 법운, 동학사 주지 요명, 성불사 주지 원경 스님과 동학사 스님들, 공주 이준원 시장 등 사부대중 500여명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 범주사 주지 법웅 스님은 "일체중생이 부처님과 똑같은 지혜와 자비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데 누구는 사람

이 되고, 누구는 동물이 되고 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각자가 지은 업이 다르기 때문이다"며 "때문에 말 못하는 동물이라고 해서 함부로 죽이거나 가볍게 여겨지 말아야 한다"고 법문했다.

이어 이준원 공주시장은 "오늘 행사를 계기로 이 자리의 모래를 파내 금강 물이 흐르게 해서 방생한 치어들이 조금 더 넓고 깊은 강에서 자랄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우리 공주시민 모두가 금강을 생명이 살아 숨쉬는 강으로 만드는데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공주시가 치어구입비 5000만원, 행사운영비 1000만원 등 6000만원을 지원한 이번 법회는 드물게 지역 사찰과 지자체가 친환경 방생을 위해 함께 협력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와 관련, 중부내수면연구소 이완욱 박사는 "이번 마곡사의 방생법



마곡사 스님과 신도들이 5월 27일 공주둔치공원 백사장에서 붕어 치어를 방생하고 있다.

회는 불자들의 업장 소멸과 내수면의 어족자원 복원 등 다방면으로 유익한 행사였다"며 "앞으로 각 사찰 및 사업에서도 마곡사처럼 지방 자치단체의 방류 사업에 방생을 연계해 진행한다면 자연 생태계 교란이

라는 논란은 없을 것이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외래어종의 방생과 관련, 내수면 연구소 등은 정부가 치어 생산을 담당하고 방류를 원하는 사람(혹은 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공급하는 제

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즉 방류를 원하는 사람은 원하는 시기, 장소, 어종 등을 정확히 명시해 정부의 허가를 받게 하자는 것.

그동안 방생법회 혹은 방류사업은 자연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야생동물의 방생으로 인해 사실상 금지되어 왔다. 야생동물보호법에 따른 금지 대상은 황소개구리와 붉은귀 거북, 큰입배스, 파랑불우렁(불우렁) 등 환경부 지정 생태교란 동물 4종과 딱봉어, 미꾸라지, 이스라엘잉어(향어) 등 외래종이다.

이번 마곡사의 방생법회는 자연 생태계를 교란 시키지 않고 오히려 복원하는 친환경 방생법회의 모범 사례가 되기에 충분하다. 특히 지자체의 방류사업과 연계한 사찰의 방생법회는 환경생명운동과 결합된 새로운 포교방안의 하나가 될 전망이다. **손효선 기자**

# "지역 사회 빛내는 자비도량으로"

## 대전 응화·득도심인당 헌공불사 봉행

진각종 대전교구청 산하 응화심인당(주교 진성 정사)과 득도심인당(주교 현수 정사)이 5월 23일 오전, 오후 2시 각각 헌공불사를 봉행했다.

대전시 대덕구 송촌동으로 옮긴 응화심인당은 건축면적 353.78㎡, 연면적 1206.4㎡의 지상 4층 건물로 심인당과 법당실, 자성학교 등이 들어섰다. 대전시 서구 월평동에 자리잡은 득도심인당은 건축면적 645.5

㎡, 연면적 1272.7㎡의 지상 3층 건물로 새롭게 단장됐다.

이날 헌공불사는 본존가지관장장법, 강도발원, 오대서원 및 유가삼밀, 경과보고, 기념사 및 축사, 주교 인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통리원장 회정 정사는 기념사를 통해 "석가모니부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사천하 유아독존'을 외쳤듯이 이곳 심인당이 지역과 사회의 빛이 되어 평등과 자비의 도량이 되어야 할 것"

이라며 "부처님의 뜻을 이어 신구의(身口意) 삼업(三業)을 닦아 진정한 불사의 의미를 실천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응화·득도심인당 헌공불사에는 도촌 총인을 비롯해 회정 통리원장, 경정 교육원장, 성조 종의회의장, 기로스승 일정 정사, 삼학심인당 주교 현봉 정사, 대전교구청장 휴명 정사, 서용교구청장 수성 정사, 부산교구청장 혜명 정사 등 300여 스승과 신도들이 동참했다. **김성우 기자**

## 속리산에 불교공예 공방 보은군, 내년까지 조성키로

충북 보은군(군수 이항래)이 속리산 국립공원 입구에 연 면적 1천400㎡(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의 공예공방을 2009년 6월까지 조성한다고 최근 밝혔다.

보은군은 국비 등 약 7억2000여 만

원을 들여 조성하는 공방은 공예 학습·체험장, 창작 공방, 작품전시·판매장 등을 갖춘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예 공방에서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복숭아 씨앗으로 불교공품을 만드는 도실공예 ▲보리수 염주를 제작공예 ▲황토삼목 제조 ▲목(木)공예 등의 다양한 체험 시설을 선보일 계획이다. 공방은 보은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예가들이 입주

해 운영하게 된다.

이항래 보은군수는 "속리산으로 체험학습을 오는 학생들도 많고, 일관 관광객도 많은데 그들이 체험하고 즐길 공간이 없다"며 "속리산을 찾는 사람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게 속리산면 일원에 공방 터를 잡는다"면 관광객 유치와 지역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예상 된다"고 말했다. **손효선 기자**



5월 27일 개관식을 가진 금강대 원각도서관.

## 금강대 원각도서관 문 활짝

천태종 종립 금강대학교가 3년 7개월만의 공사끝에 원각도서관의 문을 열었다. 금강대(총장 성낙승)는 지난 해 9월 3년간만에 연면적 1만2천67㎡의 지하1층 지상5층 규모의 원각도서관을 건립, 그 뒤 약 7개월간의 보수 정비 끝에 5월 27일 개관식을 봉행했다.

이날 개관식에는 천태종 종정 도용, 총무원장 정산, 감사원장 준광 스님과 성낙승 총장, 임성규 논산시장, 이인재 국회의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열람실, 정기간행물실, 단행본자료실 등을 갖춘 원각도서관은 6만 3천여 권의 국내·외 단행본 도서와 307종의 정기간행물, CDROM·DVD 등 4천630종의 비도서 자료를 구축했다. 또한 멀티미디어실과 사이버교육센터, 스테디룸, 장애인 열람실, e-book 서비스(인터넷을 통한 전자책 도서관 서비스) 등도 갖추었다. **손효선 기자**

# "불심 담아 다기 빚지요"

우리 지역 부부나혼자 전통도예가 이인숙 씨

여성의 품으로 한국 전통가마를 이용해 도자기를 굽고 있는 도예인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그녀는 바로 충북 옥천군 군북면 소정리 낮은 산 아래서 "옥천요(窯)"를 운영하는 이인숙(61)씨다.

전통가마에 구운 다기(茶器)에 차를 마셔야 제 맛이 난다는 것을 느낀 후 천한봉 도예가(대한민국 제95-19호 도예명장)에게서 전통가마를 배운 그녀가 30여 년간 즐겨 빚는 작품은 다완(茶碗: 차를 마실 때 사용하는 잔 또는 사발)과 다기다. 특히 스님들이 자주 사용하는 다기를 빚을 때는 스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불심의 혼을 넣는다.

전통가마와 함께한 30년간 이인숙씨는 작품을 빚을 흙을 경남 산청과 충남 태안 등에서 가져다 사용했다. 다완과 다기



사모작과 있다"고 이인숙씨는 말한다.

이인숙씨의 작품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일본이 많다. 지난 2월에는 일본 교민들의 초청으로 일본 도쿄 전시관에서 10일간의 전시회를 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인숙씨는 "해외 전시의 경우 교민들의 초청이 아니면 혼자 힘으로 전

## 옥천군 낮은 산 아래서 옥천요(窯) 운영 교민 초청으로 도쿄서 전시회 열기도

등이 빚어지면 3개의 가마에 넣고 약 20여 시간 동안 뒤집혀 700-800도 정도 초벌구이를 한다. 이때 팔꿈치로 쓰이는 나무는 3년간 건조시킨 소나무만을 사용한다. 초벌구이가 끝나면 작품을 식혀서 재를 펴고 유약을 발라준다. 그리고 다시 약 20여 시간동안 1300도의 온도로 재벌구이를 한다. 최종 작품은 재벌구이가 끝난 후 작품의 표면을 사포로 문지르고 물로 씻어줘야만 완성된다.

이렇게 20여 일간의 파과 정성을 들여 만든 작품이 '옥천요(窯)'에서 탄생된다. 옥천요에는 수천 점의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돼 있는데 "특히 외국 배우 안젤리나 졸리를 모델로 빚은 도자기가 내방객들의 시선을

시위를 열기는 무척 힘들다"며 "나는 그저 교민들의 초청에 전시회를 여는 것뿐. 진정으로 한국의 맛과 맛을 세계에 알리는 분들은 '한국 전통가마로 빚은 도자기'를 알아주는 교민들일 것이다"고 말했다.

현재 이인숙씨는 아들 최재후(37)씨와 함께 재벌구이까지 끝난 200여 작품들을 하나하나 사포로 문지르고, 물로 씻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 최재후씨는 어머니의 일을 물려받고자 일본 유학을 다녀온 제자이기도 하다. 이인숙씨는 "내 일을 이어 받겠다는 아들과 함께 생명이 다할 때까지 신심과 혼이 담겨져 있는 색깔 있는 도자기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손효선 기자**

충청지사 기사제보 | (043)732-5560

**복상불소영가천도**  
장식용 식 사용도  
실물크기(소) 3.5×5cm (중) 5×7cm

불사인연 공력을 맺으시며 세세생생 선근의 인연공력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던 흑단목**  
기가 발산되는 신비의 흑단목주, 포대화상향로

흑단목 108염주, 단주  
흑단무늬목/흑단무늬목천주  
크기: 8mm×10mm×12mm

흑단무늬목주는 가격이 저렴하여 보시용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부처님께서 즐겨 사용하시던 흑단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기가 발산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 문양이 은은하여 아름다우며 동남아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목입니다.

**불경 금책, 금병풍, 달마액자, 족자**

소병풍 (관세음보살 보문품) (지장보살본원경) 크기: 가로, 세로 74cm

달마액자 (중) 35 × 50cm (대) 42 × 65cm

올마니반 매울족자 60 × 20cm

금강 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로 99.9%의 금을 나노화 하여 조성된 초소형 경전인 불경금책을 제작보급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복장용으로 장엄하오며 단체 주문시 발원문, 가족명단을 인쇄하여 드립니다. 또한 영가천도, 불사, 소장 및 휴대용으로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도 사용됩니다. 순금경전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가피를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입니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합니다.

문의전화 02-722-1850  
농협: 1143-12-049474 송명화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 효능 금강약돌 온열복대**

원열복대 의료기인증, 의료용전자기발생기 전기용품 안전인증, LIG 배상보험 가입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실용실안출원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 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속담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속담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흥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열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속담(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배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흥터 걱정 없이** 치유됩니다. **차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불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작용시 **배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도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심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질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료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